



PROFESSORS' COUNCIL
DANKOOK UNIVERSITY
단국대학교 교수회

교수회브리프

제18권 2호



교수회 브리프 18권 2호. 발행일 2024년 2월 29일

발행인-김정윤, 인쇄-김현범, 편집-이지수, 제호·로고 디자인-정훈동, 행정-김문주·이소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인문과학관 244호 Tel 041-550-1553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Contents

03 Welcome

격랑의 시대를 기회로 맞이하자
박영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교수회 부회장/죽전지회장

04 Strategy Session

2023년도 제2기 교수회-대학 간 복지협의체 운영계획
김현범 교수,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교수회 총괄 사무국장

06 Community News

2023년 2학기 교수회 활동
2023학년도 2학기 정년퇴임식 | 2023학년도 제2차 통합운영위원회의 | 교수회-안순철 총장님 및 대학 본부 상견례 | 신입교원 축하메일 발송 및 기념품 증정 | 생애 첫 보직교수 명패 전달 | 교수회 시험기간 간식행사 | 교수회-대학 간 복지 협의체 | 교수회 특강 | 미화원 명절 선물 전달 | 교수회 동아리 후원 | 장충식 명예이사장님 | 장호성 이사장님, 안순철 총장님 예방 | 교수회-노조위원장 간담회

09 Club Activities

2023년 2학기 교수회 동아리 활동 소개
- 열정과 환희의 순간! 전국 대학교수 테니스 대회 단체전 A조 우승 참가기
- 단국 교원이 모여 만드는 특별한 골프의 즐거움

10 Contribution

남의 일만 같았던 은퇴가... (안상미 교수,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단국대로 와서 꽃이 되다 (라수현 교수, 사회과학대학 상담학과)
알파 남성 보다 시그마 남성을 지향하며 (추현식 교수, 간호대학 간호학과)
해외선진사업 연수 프로그램 및 CES 참석 후기 (이병선 교수,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과)
제1회 대한문화예술제전 공연을 마치고... (오유진 교수,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전공)
다가올 미래, 이 너머의 미래는 "생성형 AI" 손에 달렸다 (이재동 교수,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이기적 유전자, 인간의 진화, 그리고 총, 균, 쇠 (진한준 교수, 과학기술대학 생명공학부)
올바른 구취 관리법 (유현준 교수, 치과대학 치의학과)

21

신임 및 퇴임교원
상조활동
교수회 임원 및 운영위원
교수회 사무국 연락처
편집후기 및 기고 방법 안내

격랑의 시대를 기회로 맞이하자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3년을 되돌아보면 Covid-19로 인한 대학생활 환경의 암울한 변화를 끝내고 다시금 예전의 활기찬 캠퍼스로 되돌아간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여러 교수님들을 다시 뵙고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사회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지원자수의 격감, 교육부가 강조하는 무전공 선발제도의 도입 등 우리 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신입생의 무전공 선발여부를 대학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과 연계시키면서 우리 대학도 무전공 선발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각 학과마다 이와 관련된 어려움 및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관(官)중심의 후진적 교육행정에 불편함과 아쉬움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교수회는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하는 대학본부의 어려움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신입생 무전공 선발을 우리 대학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수님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말부터 신입총장님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단국대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위한 의욕적인 발걸음이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대학본부와 소통하는 창구로서 우리 교수회를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희망하며, 우리 교수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대학본부에 적극 협조하고, 반면 교수들의 권익신장에도 보다 신경써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릴 것입니다.

2024년도 제1학기에도 김정윤 회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우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여러분의 건강과 학문적 성취를 기원드립니다.



박영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교수회 부회장/죽전지회장

2023년도 제2기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 운영 현황



김현범 교수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교수회 총괄 사무국장

교수회와 대학본부 양자 간 효율적이며 체계화된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고 대학 구성원들이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2023년도 교수회-대학 간 복지협의체를 지난 2023년도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김오영 교학부총장님을 포함한 본부 교무위원분들과 김정윤 교수회장 및 교수회 임원진이 배석하였으며 교수회에서 제시한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대학본부측에서 교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해당 현안들에 대한 적합한 개선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많은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이 도출된 자리였습니다. 2023년도 교수회-대학 간 복지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현안과 그에 상응하는 대학 본부측의 개선 및 해결 방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1. 2023년도 제2기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 협의 안건 별 결과

| 안건 요약 | 협의 결과 요약 |
|---|--|
|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경우 대학원 수업을 책임시수로 3학점 이상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및 문화예술대학원 소속 교원들의 학기당 1인 1강좌 개설 원칙 · 학부 교양 과목 개설 심의 합리화 및 공정화를 통한 교양 교과목 개설 확대 방안 검토 |
| 전국단위 경기에 출전하는 감독(코치) 수행 지도교수의 출장비 지원 및 수상에 따른 연구점수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출장비 지급 기준을 경기 비중 (예, 전국체전급)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 긍정적 검토 · 수상에 따른 교육업적 반영 확대 검토 |
| 단과대별 특성을 고려한 3시간 연강 과목 지정 권한의 교무처장에서 학장으로 위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 실습 등 교과목 특성상 필요하거나 금요일 수업 기타 단과대학의 특별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 연강을 제한적으로 허용 · 3시간 연강과목 지정 권한의 교무처장에서 학장으로 위임은 학사행정 일원화 필요성 및 3시간 연강 확대 우려로 인해 현행 유지 |
| 수강 정정 시기 변경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강 정정 기간 개선을 통해 수강 정정한 학생이 2 주차 수업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 계획 |
| 참여율 및 학과 자율성을 보장한 DK로드맵 시행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학기부터 개강 후 학기 중 시행하는 안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학과 및 학생 자율 참여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개선 중 |
| 일정변경 등에 의한 교원연수 불참 교원에 대한 행정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사유로 인한 불참 사유서 제출 시 적극적으로 인정 |
| 영문 논문 교정 서비스 확대 방안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 논문 교정료를 지원했던 재원으로 연구 장려금 확대 시행 |
| 신입생 모집단위 광역화 시행을 위한 학교 차원의 논의 시 관련 학과 교원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구조개편 위원회 구성 시 단과대학장의 참여를 통한 학과 의견 반영 예정 |
| 교직원 식당(죽전 대학원동) 품질 개선 및 교수전용 구역 지정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인사처에서 2024년 상반기 중 교직원 식당 운영업체와의 협상과 기타 사항(교직원 학생 식당 분리 재검토 등)의 종합 검토를 통해 개선안 마련 예정 |

| 안건 요약 | 협의 결과 요약 |
|-------------------------------|---|
| 강의실 노후 냉난방기 및 칠판 교체 요청 | · 불편 사항 접수 시 총무인사처에서 점검 및 상태 확인 후 수리 및 교체 시행 |
| 교내 주차관리 개선 요청 | ·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학생 주차 공간 지정 운영 등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 협의 진행 |
| 쿼보드 교내 사용 규제 | · 교내 미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쿼보드 안전 현수막 게시 등의 조치 시행 · 업체의 쿼보드 교내 배치 제한에 대한 사항은 학생회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 방향 도출 예정 |
| 도서관 대출 도서 천안 죽전 교차 반납 | · 현행 도서관 대출 도서 천안 죽전 교차 반납 시스템 정비를 통해 교차 반납이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 |
| 교육교수 단독 연구실 배정 | · 교육부교수에서 교육교수로 승진 시 1인 1실 재배정 |
| 신임교원 임용 시 각종 수당 및 복지 내용 안내 강화 | · 현행 전체교원 및 신규교원 연수 시 연수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 안내 · 신규 교원 임용시 총무인사처 및 교수회에서 관련 내용 안내 강화 |

교수회는 향후 대학본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대학과 더불어 복지협의체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교수님들의 의견이 신속 정확하게 대학측에 전달되어 논의되고 대학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오영 교학부총장님 및 대학본부 교무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교수회에서는 더욱 발전된 형태의 복지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학년도 1학기 행사 계획

- 3월 - 통합운영위원회
- 4월 - 교수-대학 복지협의체
 - 교수 야유회 및 신임교원 환영식
 - 중간고사 학생 간식 행사
- 5월 - 여교협 추천행사
(특강: 행복한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의 포인트)
- 6월 - 기말고사 학생 간식 행사

2023년 2학기 교수회 활동

2023학년도 2학기 정년퇴임식



사진: (왼쪽 첫번째) 김정윤 교수회 회장, (중앙) 안순철 총장님과 2023학년도 2학기 정년퇴임식 참석자들

2024년 2월 27일,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2023학년도 2학기 교직원 정년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교수회에서는 정년퇴임 교원에게 축하 화환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생애첫보직교수 명패(축하화분)전달



사진: (왼쪽) 김오영 교학부총장, 김정윤 교수회장 (오른쪽) 김정윤 교수회장, 송병구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생애 첫 보직을 맡으신 다음 교수님께 명패를 제작하여 축하인사와 함께 전달하였으며, 이미 명패를 보유한 교수님께는 축하 화분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 김오영(교학부총장), 김재일(대외부총장), 오좌섭(산학협력부총장), 한경근(특수교육대학원 원장), 조성용(법과대학 학장) 최중무(SW 융합대학 학장), 강대경(생명공학대학 학장), 장철준(죽전 입학처장), 송병구(천안 학생처장), 조한승(국제처장), 민동원(취창업지원 처장), 최성경(대학원 교학처장), 조완제(죽전 산학협력단 단장), 전은화(미래교육혁신원 원장)

2023학년도 제2차 통합운영위원회의



사진: (왼쪽 세번째) 김현범 총괄사무국장, (중앙 왼쪽) 김정윤 교수회장, (중앙 오른쪽) 이수경 감사, (오른쪽 뒤 네번째) 박영준 부회장 외 운영위원

2023년 10월 5일 죽전캠퍼스 범정관 505호대의실에서 제2차 통합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신임교원 축하 메일 발송 및 기념품 증정



사진: 신임교원 축하선물, 3단 및 2단 접이식 우산세트

교수회 - 안순철 총장님 및 대학 본부 상견례

2023년 9월 25일 신임 안순철 총장님, 비서실장, 기획실장과 김정윤 교수회장, 박영준 수석부회장, 김현범 총괄사무국장과 우리대학과 교수회의 동반 발전을 위한 상견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회 시험기간 간식행사 -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사진: 죽전 캠퍼스 (왼쪽 중앙 뒤부터) 임수경 감사, 이성훈 운영위원, 김정윤 회장, 천안 캠퍼스 (왼쪽부터) 이성훈 운영위원, 임유미 천안사무국장, 김정윤 회장, 정치영 부회장, 경지수 운영위원, 김현범 총괄사무국장

교수회에서는 중간고사 일정을 맞춰 10월 23일과 24일 양일 동안 죽전캠퍼스 해당관 앞과 천안 캠퍼스 울곡기념관 광장 앞에서 간식 배포행사를 했습니다. 양 캠퍼스에서 햄버거와 콜라로 구성된 간식 260개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행사시작 후 10분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행사에는 김정윤 회장, 정치영 부회장, 김현범 사무국장, 임수경 감사, 임유미 천안지회 사무국장, 이성훈 운영위원, 경지수 운영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교수회-대학 간 복지협의체

김정윤 회장, 박영준 부회장, 김현범 사무국장과 대학측에서는 김오영 교학부총장님을 대표로 죽전 교학처장, 죽전 총무처장 및 담당자들과 통합운영회의에서 제기된 교수회 측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trategy Session」에 정리했습니다.

교수동아리 후원

테니스회와 골프대회에 각각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수테니스회는 1300 여 명이 참여한 전국 교수테니스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밖에도 단국교수골프회 개교기념 골프대회가 천안 마른뉴데이 CC에서 진행되는 등 교수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교수회 특강

연구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교수님들을 위한 '연구실에서 가능한 운동법'에 대한 내용으로 스포츠 과학대학 김기홍 교수님이 ZOOM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셨습니다. 정확한 운동법을 전달하고자 1주일 전 운동영상을 촬영하였고, 디자인학부 최원재 교수님이 촬영과 편집에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주셨습니다. 운동 시범은 스포츠 헬스케어학과 최지우 대학원생이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단국대학교 교수회

교수회 특강

교수연구실 운동

일 시: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14:00~15:00
 장 소: ZOOM (meeting ID: 840 0356 0551)
 문의사항: 죽전캠퍼스 조교 김문주 (죽전 2894)
 천안캠퍼스 조교 이소현 (천안 1553)

장충식 명예 이사장님, 장호성 이사장님, 안순철 총장님 예방

김정윤 회장, 박영준 부회장, 김현범 총괄사무국장, 임유미 천안사무국장, 임은주 죽전 사무국장, 임수경 죽전 감사가 장충식 명예이사장님, 장호성 이사장님, 안순철 총장님을 예방하여 명절 인사와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수회, 노조위원장 간담회

교수회는 노조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교직원의 동반 임금 인상이 가능한 방향으로 노조의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의 및 지원하였습니다

미화원 명절 선물 전달



사진: (왼쪽) 천안 캠퍼스 (왼쪽 부터) 오세행 감사, 김현범 총괄사무국장, 김정윤 회장 (오른쪽) 죽전 캠퍼스 (오른쪽 부터) 김정윤 회장, 김현범 총괄사무국장

설을 맞이하여 평소애 많은 도움을 주시는 미화원 분들에게 교수회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죽전과 천안 캠퍼스에서 전달했습니다

교수회 시험기간 간식행사 - 2023년 2학기 기말고사



사진 : (왼쪽) 천안캠퍼스 (왼쪽 뒤부터) 김현범 총괄사무국장, 김정윤 회장, 조경진 운영위원, 정치영 천안지회장 (오른쪽) 죽전캠퍼스 (오른쪽 앞부터) 김정윤 회장, 임수경 죽전감사, 박영준 죽전지회장

교수회에서는 기말고사 일정을 맞춰 12월 11일과 12일 양일 동안 죽전캠퍼스 해당관 앞과 천안 캠퍼스 울곡도서관 광장 앞에서 간식 배포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중간시험 간식행사에 이어 기말시험 행사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간식은 행사 직후 바로 소진 됐습니다. 행사에는 김정윤 회장, 박영준 부회장, 정치영 부회장, 김현범 사무국장, 임수경 감사, 임유미 천안지회 사무국장, 조경진 운영위원이 참석하여 도움 주셨습니다.

열정과 환희의 순간! 전국 대학교수 테니스 대회 단체전A조 우승 침관기



전국 교수테니스대회는 1972년에 시작되어 매년 국내·외 4년제 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테니스를 통해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대회로 경기 종목은 대학별 단체전A조, B조, 개인전의 청년부, 일반부, 장년부, 노년부, 여성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본선 진출 이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 81개 대학 1,300여명이 참가하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마추어 대회로 부산대학교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우리 학교 단체전 A조로 출전한 이병인교수(특수교육과), 문현준교수(건축학부), 박우영교수(국제스포츠학부), 권민혁교수(체육교육과), 전용균교수(교육학과), 이정환교수(치의예과)는 디펜딩 챔피언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여 전통적 강호인 충남대를 상대로 단체전 우승을 하였다.

올 2024학년도에는 인천대학교 주최로 5월에 진행된다. 또 다시 그날의 환희를 기대해 본다. 우리 학교에서 오래되고 친밀한 교직원테니스회는 언제나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자 한다. 최근 동호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테니스를 즐기고 싶거나, 테니스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교에 계신 교수, 교직원분들을 언제나 환영하며 관심있는 분들은 매일 늦은 오후 학교 테니스장으로 와서 테니스를 통한 다양한 교내 구성원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도전의 희열을 느껴 보기 바랍니다.

단국 교원이 모여 만드는 특별한 골프의 즐거움

우리대학 교수진의 우호증진을 위한 골프모임으로 매년 개교 기념일에 화려한 행사로 펼쳐집니다. 단국대학교 죽전 및 천안 캠퍼스의 교원들이 모여 만드는 이 특별한 순간은 골프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님들과의 소중한 교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단골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이일석 교수님(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장)은 이 모임을 통해 단국대학교 정신을 전하며, 훌륭한 리더십으로 단골회를 빛내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단골회는 학문과 스포츠의 조화, 동료 교수님들 간의 유대감을 키우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득한 웃음과 풍성한 우정이 넘치는 단국대학교 단골회의 특별한 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국대학교의 자랑스러운 교수님들과 함께 뜻깊은 라운딩을 즐기며, 단골회의 멋진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2023학년도 개교기념 골프대회에서는 장호성 이사장님께서 같이 라운딩 하셨습니다. 공예학과 백한승 교수님이 직접 제작한 멋진 수제 우승트로피를 우승자인 스포츠과학대학 손원호 교수님이 수상하셨고, 참가한 모든 교수님께서는 단골회가 준비한 학교로고가 새겨진 골프공세트가 증정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교수님께서 기부해주신 작품(그림, 글, 저서), 고급 와인, 스케일링권, 칫솔 세트등의 다양한 경품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남의 일만 같았던 은퇴가...



안상미 교수
약학대학 약학과 /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남의 일만 같았던 은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보낸 39년의 연구 시간이 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약리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무사히(?) 박사학위 끝내고 다양한 포지션의 연구원으로 13년, 귀국하여 국가 연구소에서 공직 연구자로 13년, 교수로서 13년의 꽤 긴 시간이 압축화일 풀리듯 짝 펼쳐지는데 가장 먼저 떠올러지는 단어는 그냥 한마디로 '열심히는 살았구나'입니다. 여성 연구자, 엄마 연구자, 아내 연구자, 그리고 실력있는 멋진 교수로 사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것이기에 다시 하겠느냐 물으면 대답은 "글쎄 ~"입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해 왔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위로와, 서툴기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방향만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 저 자신을 칭찬하려 합니다.

삶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 만해도 미국 유학 갈 거라고는, 박사 학위받을 때만 해도 공직 연구자가 될 거라고는, 국립보건원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서울 토박이인 제가 단국대 교수 겸 천안택으로 살 것이라는 것도 저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니까요. 그래도 그때 그때마다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던 분들, 특히 단국대 재직 동안 저를 친구로서 대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던 많은 선후배 교수님 직원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있었기에 단국대학 교수로서 은퇴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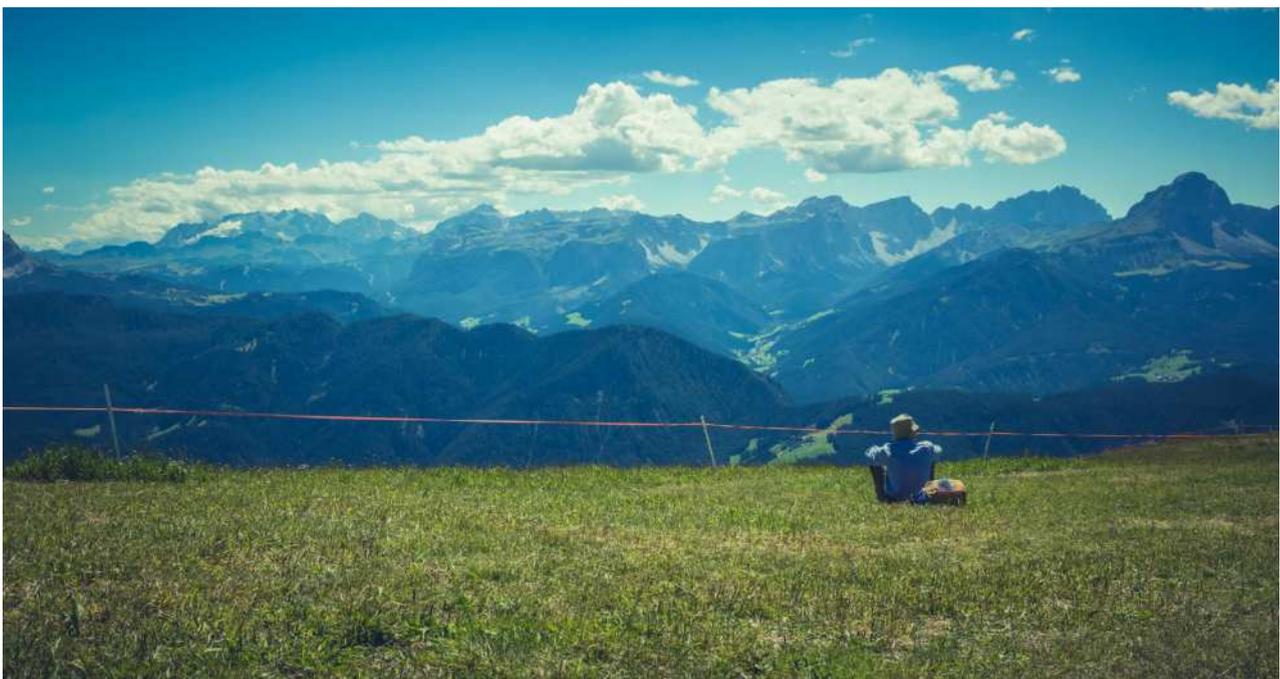
제가 단국대에 온 것은 2010년 9월입니다. 다른 교수님들에 비하면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약학대학의 2011년 개교에 앞서 한 학기 일찍 와서 이런 저런 일들, 학사과정 준비, 약학관 교실 및 시설 배치, 그리고 기자재 주문 등 다양한 준비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조직/시스템을 만든다는 일에 무척이나 흥미롭고 신나해 하던 기억이 납니다. 2011년 처음으로 약학대 학생 32명이 입학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처음 입학한 학생들을 넘 예뻐하시고 넘치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지요. 그렇게 13년이 흘렀고 약 300 여명의 약학대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음에 너무나 감개 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교육 철학은 학사든 석박사든 ‘자율 속에 방법을 터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가지 후회되는 일은 약사들을 배출해야 하는 과의 교수이다 보니 지식 습득을 통한 전문직으로서의 실력 쌓기에 너무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상이 급변하여 구글, AI들이 이러한 지식들을 대체해 주는 것 같아 오히려 학생들에게 약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사회 적응과 같은 실제로 대학 졸업 후 사회에서 부딪히는 일들의 해결 방안들에 대한 토론 시간을 더 할당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남아 계신 교수님들이 지혜를 모아 더 좋은 묘안을 도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대학 교수님들의 교육 연구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이제 교수라는 직업도 매력있는 직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비 따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연구하고자 대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쌓이는 교수님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지 심각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다“ 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나름의 ‘나의 라이프’를 즐길 줄 아는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가 옳은 말이기도 한데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노력하는 가운데서 내 시간을 컨트롤하다 보면 은퇴하는 시점에는 좀 더 행복해 했던 나를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무척 후회가 됩니다. 또한 직장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인 것처럼 교수도 학교가 즐거워야 할 것입니다.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교수 직원 학생 사이에 적절한 교류와 즐거움이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캠퍼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류가 코로나 이후로 줌으로 대체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점점 얼굴 보기가 힘들어 지니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특히 교협 회장님과 임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국대학은 캠퍼스 가운데 호수가 있어 너무 아름답기는 한데 건물들이 길게 배치되어 있어 동선이 길어 교류가 힘든 단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고는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캠퍼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몸 담았던 천안 교정이 더욱 아름답게 푸르러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단국대로 와서 꽃이 되다



라수현 교수
사회과학대학 상담학과

제가 주로 관심 있는 연구 주제는 ‘치료적인 대인관계’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를 만날 때 어떤 관계가 내담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건강하고 필수적인 관계란 사람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학문적인 언어로 명료화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꽤 헌신적이어서 아이를 위해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아이는 만성적인 불안이 크고 마음속에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 늘 고픈 느낌에 시달립니다. 이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마침내 ‘부모님이 친절한 남’ 같다고 명료화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의 부모는 좋은 학교를 찾아서 보내주거나 무엇을 사주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열심히 해 주었지만, 정작 아이의 힘든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주는 것’은 어려워했습니다. 아이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함, 미숙함, 외로움에 대해 부모에게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 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이의 마음을 듣고 함께 하기보단 조언을 해주거나 상황을 바꾸는 일들에 몰두함으로써, 그 힘든 감정으로부터 도망가기 급급했던 것이죠.

Daniel Siegel(2012)은 이러한 관계를 “서로에게 잘 조율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내가 느껴졌다는 것을 느낀다(p. 23).”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담학의 영역에서는 이를 Edmund Husserl의 ‘상호주관성’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의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 엄마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나(self)’의 존재를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와 구분되는 ‘자기존재감’을 형성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자기존재감이 분명한 사람은 ‘나’라는 충만함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써 삶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 경험이 마치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통해 표현한 관계성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의 주요 내용은 타인에게 나의 존재가 진정으로 발견되었을 때 나의 고유성이 비로소 발아하는 학문적 원리를 정확하게 상징합니다. 심리상담사이자 교육자로서, 내담자와 학생들을 진정으로 발견하여 그들이 고유한 색채를 띤 아름다운 꽃으로 움트도록 양육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단국대학교에 임용되는 과정은 제가 조직과 사회에 발견되고 꽃이 되는 경험이었습시다. 제가 좋아하는 저의 면모들이 저를 뽑아주시는 분들의 눈에 좋은 점으로 발견되었고, 그분들의 믿음은 제가 단국대학교라는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 사이에 하나의 또다른 꽃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떤 분도 무엇을 하라고 시키지 않지만, 단국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기꺼이 단국대학교를 나와 연결된 것으로 가깝게 느끼고 야끼며 이 조직과 구성원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담학과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단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국내외의 학문 분야에서 질차탁마하여 단국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힘쓸 것입니다.

*참고문헌 Siegel, D. J. (2012). Pocket guide to interpersonal neurobiology: An integrative handbook of the mind (norton series on interpersonal neurobiology). WW Norton & Company.

알파 남성(Alpha Male)보다 시그마 남성(Sigma Male)을 지향한다면

시그마 남성(Sigma Male)은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오메가 남성들과 어떠한 위계질서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관심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몰입하는 남성을 말하는 신조어이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현재까지 나의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19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간호학과를 진학하기로 결정하였다. 수능시험을 치른 2005년 겨울 그 당시 나는 주변 어른들로부터 “남자가 무슨 간호사가 되겠다고 간호학과를 가니!” 라는 걱정 어린 핀잔을 들었다. 하지만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반드시 하고 싶었다. 그래서 간호학과로 진학한다면 등록금을 주시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전라도 읍내도 아니고 면에서 살다가 서울로 상경하여 우여곡절 끝에 나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기업병원과 대학병원 간호사로 10년을 일했다. 그 사이 남자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고 간호학이 금남(禁男)의 영역에서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가족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물론, 나는 삼교대 근무와 근무당 터무니없이 많은 환자 담당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해야 했지만 말이다. 병원근무 초기에는 환자와 보호자 뿐만 아니라 선배 간호사를 비롯한 동료도 가지고 있는 “남자” 간호사라는 편견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 점점 나를 남자간호사가 아닌 동료 간호사로 하면서 병원생활에도 점점 적응하게 되었다.

생명의 최전선에서 간호사로서 일하다 보니 내가 환자에 제공하는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진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파트타임 학생으로서 대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으며 눈을 떠보니 박사과정을 졸업하게 되었다. 물론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혼기(婚期) 놓치고 일과 학업으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그 덕택에 2023년 9월 인생 처음 지원한 단국대학교 간호대학의 성인간호학 전공 전임교원이 되었다.

전임교원이 되고 난 후 일이지만 처음 학과 면접을 오면서부터 느낌이 좋았다.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택시 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택시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그 택시기사님이 “천안에서 또 뵈었으면 좋겠네요. 느낌이 좋네요” 하는 덕담이 내 기분을 설레게 하였다. 나도 웬지 모를 좋은 예감으로 자신감이 생겼었다. 그렇게 나는 2023년 9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간호대학 전임교원이 되었다.

병원에선 간호사로 이제 소위 말하는 날아다니는 중간년차 간호 베테랑이었지만, 단국대학교 교수로서 이제 5개월 차인 나는 아직도 모든 일에 서툴고 어설피다. 여러 동료 교수님들이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로 다시 신규 간호사처럼 강의도 행정업무도 적응하고 있다. 아름다운 조경과 천호지가 있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가 참 좋다. 뿐만 아니라 착하고 예쁜 학생들과 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교수님들과 함께라서 더 좋다.

생각해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별난 아이였다. 동물과 식물에 빠져 부모님을 곤란하게 하기도 하고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 간호학과에 진학했고 또 그 중에 남자 간호학과 교수가 되겠다고 도전했고 꿈을 이루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학계 교수님들과 만나 만성질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생겼다. 이런 것을 간호학과 교수가 왜 하지? 하는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자 한다. 단국대학교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시그마 메일(Sociable Sigma Male)로서 말이다.



추현식 교수
간호대학 간호학과

해외 선진산업 연수 프로그램 및 CES 참석 후기



이병선 교수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2024년 1월 4일, 사업의 일몰을 바라보는 LINC3.0 사업단의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해외 선진산업 연수에 참가하여 윤상오 단장님, 최완수 팀장님, 전설화 선생님과 함께 26명의 학생들을 인솔하게 되었다. 이번 해외 선진산업 해외 연수는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유타 및 네바다 주 등지에서 진행되었고, 특히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 (1월 9일-12일) 참가 및 참관을 주요 일정으로 기획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하는 모멘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번 일정은 필자에게 설렘이 가득한 일정이었다. LINC3.0 사업단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새로운 학생들을 마주하는 순간은 언제나 즐겁다. 더욱이 이번 연수에서는 다양한 전공과 나이의 학생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 연수 동선에 대한 설렘도 컸다. 개인적으로 박사 후 과정을 보내고 귀국한 뒤 6년 만의 방문인데다 교수라는 꿈을 이루고 나서 첫 방문이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특히 연수 일정에 포함된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가스는 2년간의 박사 후 과정 중 가족과 함께한 유익한 여행의 추억이 담겨있었기에 더욱 특별했다.

샌프란시스코 입국을 통해 시작된 연수는 미국의 현재와 과거, 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2천4백여 km의 대장정이 진행되었다. 첨단 기술의 요람 실리콘 밸리에서 시작된 연수는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전문기관인 Plug and Play 방문을 통하여 Paypal, Dropbox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스타트업의 비옥한 토양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세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 방문을 통해 세계적 인재가 육성되는 현장을 경험했다. Route 66을 따라 진행된 미국 과거로의 여행에서는 미국 서부 철도의 중심지 바스토우, 446 km를 따라 형성된 그랜드캐년, 자연이 빚어낸 협곡 앤탈롭캐년, 죽은자의 영혼이 머무른다는 의미의 자이언캐년 등 170여년의 미국 서부 개척 역사와 수십억년의 지구 지각운동의 역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었다.



사진: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지에서 이루어진 LINC3.0사업단의 해외 선진산업 연수



사진: 용인 소재 기업 크레아큐브와 볼트크리에이션의 전시를 듣는 학생들과 윤상오 단장

필자는 CES 참관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전자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 유닛, 감지된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 유닛과 이를 해석하는 데이터 프로세서 유닛, 이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액츄에이터 유닛, 이를 구동시킬 수 있는 전원 유닛 등으로 구성되고, CES에 전시된 많은 제품들은 이들에 대한 각각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제품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도 많이 선보인 롯데가 선보인 3차원렌더링, LG전자의 투명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의 듀얼 폴더블 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의 무인 중장비, 두산의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이 그러하다. 대한민국 산업은 센서, 데이터/통신, 액츄에이터,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진보했고, 나아가 차세대 기술에 대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이와 같은 제품의 구현이 가능했다는 생각과 함께 대한민국 이공계 연구자들의 성과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이 동시에 들었다.



사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대한민국 기업의 기술

연수 일정을 끝내며 학생들과의 뜻깊은 시간, 미국의 짧지만 강렬한 역사,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선 대한민국 등 여러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 대대적인 연구비 삭감에 의한 연구 인력감소와 경쟁력 약화가 세계 중심에 선 대한민국의 선진기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도 세계를 향해 선진산업의 역량을 펼치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기대하며, 짧은 연수 후기를 갈음한다.

제 1 회 대한문화예술제전 공연을 마치고...



오유진 교수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전공

꽤 오랫동안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무대의 환호를 받고 있을 때쯤 대한문화예술진흥 협회에서 공연을 제안 받게 되었다. 그동안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무대가 취소되거나 기획이 무산되는 등 연주자로서 활동반경이 많이 줄어든 시점이었다. 무대는 항상 연주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동력이었건만 코로나와 더불어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삶은 그렇게 느리게 흐르고 숨어버린 나의 연주세포들은 나이만큼 줄어든 체력과 더불어 죽죽 늘어져가던 그때,,,

언제나 공연은 긴장과 기대의 연속이다. 작곡가 이시현 선생님께 바이올린4, 가야금4, 장구 구성의 곡을 의뢰하고 연주자들을 섭외하고 연습장소를 물색하고 연주곡의 음악적 해석을 설정하고 연습하고 의상을 의논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한번의 연주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간의 그 수많은 공연에서 연주했건만 또다시 출발점에 서있는 기분이 들었다.

돌이켜보면 연주자로서 가장 즐거웠던 경험은 항상 실내악을 할 때였다. 켈텟(현악4중주)로 시작된 나의 실내악 연주는 이후 피아노5중주로, 국악을 포함한 '실내악양상블 모인'으로 발전해왔고 내가 기억하는 내 삶의 큰 행복을 기여한 것이기도 하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기도 전 옆집 살던 바이올린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여기까지 이어져 왔으니 바이올린을 만지며 보낸 시간이 어언 50년이 다되어 간다. 긴긴 시간동안 애증의 관계를 넘어 내 체력과 정신력의 극한 실험을 일삼던 바이올린은 지금은 거의 같이 늙어가는 부부처럼 뭐 그런 사이가 되고야 말았다.

다시 시작된 무대는 나의 예술혼을 자극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누군가에게 환호 받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나의 음악에 공감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던 학생들, 동료들, 지인들. 그들에게 23년도의 가장 추웠던 금요일, 막히는 교통체증을 아랑곳하지 않고 들려준 그 마음에 답할 수 있게 가장 좋은 음악을 들려 주고 싶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환호로 마감한 무대에 그동안 줄었던 마음을 내려놓았다. 이번 무대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역시나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었다. 우리과 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는 곳도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 수업을 제외하고 모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무엇보다 고맙게 느껴졌다. 역시 교수는 학생들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 같다.

이번 무대의 결과로 제1회 대한문화예술제전의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언제나 인생은 계획되지 않은 결과가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온다. 상을 받게 되어 기쁨도 주어지지만 다음은 더 멋지게 더 좋은 음악을 해내고 싶은 의지를 갖게 한다. 더 멋진 무대, 더 멋진 음악, 나의 학생들, 행복한 것들은 늘 주변에 있다.



다가올 미래, 이 너머의 미래는 “생성형 AI”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인공지능(人工知能, AI, Artificial Intelligence)기술과 공존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AI에 대한 관심은 특정 국가와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모든 산업계는 물론이고 각국 정부가 나서서 자국이 AI 기술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간의 생각을 빠르게 복제하고 공유하며 활발하게 유통시켜 왔던 인쇄술의 발명이래 흔들린 적 없는 인간의 인지 과정을 바꾸려는 신기술이 있다. 이 신기술은 인간의 생각을 정제하고 인간의 지식을 재정립하고 있다. 이 신기술은 “생성형 AI(ChatGPT)”라 불린다. 이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많은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될 엄청난 혁명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시간이 왔음을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생성형 AI” 혁명에 참여하기를 권고한다.

생성형 AI는 누군가에는 “기회”, 누군가에는 놓친 기회”가 될 것이다. 생성형 AI는 탐구와 발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는 변화를 가하며 기존의 과학보다 빠르게 지식을 발전 시킬 것이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거나 적어도 인지력이 상당히 발전한 존재로 느껴지고 있다. 일반 사용자에게는 대단한 작업 속도와 정확도를 겸비하고 한 분야에 정통한 학자로 인식될 것이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인간 사고의 다양한 측면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 박식함은 상당한 수준이며, 그 결과물은 한치의 의심없이 수용되고 그 능력을 신비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곤 한다. 생성형 AI의 역량은 고정되지 않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AI의 역량이 꾸준히 증진되면서 인간과 AI의 협력 관계에서 인간의 역할을 정의하기가 점점 더 중요하면서도 어려워질 것이다. 새로운 AI가 등장할 때마다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역량이 탄생하며, 그에 따라, 우리의 미래에는 완전히 새로운 미스터리, 위험 그리고 경이로움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생성형 AI처럼 인간과 같은 지식과 지적능력을 가진 AI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이고, 인간도 AI와 더 많은 영역에서 공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빈부의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것이 AI 격차라 한다. 일도 명예와 부도 AI를 아는 만큼 보일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사활을 걸고 AI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는지 그런 흐름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성형 AI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미래에 우리 삶의 모습을 미리 대비하고,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다가올 미래, 다른 건 늦었어도 “생성형 AI”만큼은 가장 앞장서서 먼저 기회를 잡길 바란다.



이재동 교수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대학원장

이기적 유전자, 인간의 진화, 그리고 충, 군, 쇠



진한준 교수
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찰스 다윈과 앨프리드 월리스는 1858년 공동으로 진화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에 출판된 다윈의 유명한 저서 [종의 기원]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의 또 다른 발견자였던 월리스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졌다. 결국 다윈이 생명의 의미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한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1865년, 그레고어 멘델은 [식물 잡종에 대한 실험]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약 30년이 지난 1900년 드브리스, 체르막, 코렌스에 의해 재발견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 받게 될 때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인류사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발견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으며, 다윈이 끝내 풀지 못해 난감해 하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었다.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유전이 엄마의 빨강 물감과 아빠의 흰색 물감이 섞여서 아이에게서 분홍색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멘델의 유전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유전의 주체가 물감처럼 액체의 개념이 아니라 입자라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바로 위의 예를 다르게 적용해 보면, 빨강 싯가루와 흰색 모래를 각각 부모로부터 받은 아이는 마치 빨강 물감과 흰색 물감이 혼합된 아이처럼 분홍색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홍색 물감과 다르게 자식을 이용하면 섞여 있던 붉은 싯가루와 흰색의 모래를 분리할 수 있으며 어른이 되어 자식을 갖을 때 다시 배우자의 것과 혼합할 수 있게 된다 (분리의 법칙). 이 입자가 바로 유전자(gene)이다.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사람을 포함하여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이 유전자가 살아가기 위한 생존 기계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유전자는 이기적인 존재이며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한 방법만을 모색한다고 했다. [이기적 유전자]가 저술되는 시기 많은 과학자들은 개체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집단선택설’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집단이 커져 먹이가 부족해지면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음을 선택하는 레밍쥐, 사자의 습격을 미리 알아차리고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임팔라 그리고 맹금류가 출현하였을 때 큰 소리로 지저귀며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어떤 새와 같이 개체들이 집단을 위해 송고한 희생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리처드 도킨스는 책에서 집단을 위한 희생은 없으며 오로지 유전자 자신의 안녕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물에 빠져 죽는 레밍쥐는 단지 새로운 거처를 찾고 있었을 뿐이며, 높이 뛰어오른 임팔라는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어 사자에게 다른 먹이감을 찾으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고, 큰 지저귀에 놀라 날아오른 다른 새들이 매의 먹이가 되게 하고 자신은 살아남아 유전자를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화석은 35억년 전에 형성된 남세균(cyanobacteria)의 퇴적층인 스트로마톨라이트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유전자는 그 이 전부터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신을 지켜왔을 것이고 그 결과로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생존 기계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생명 기계가 출현하였다.

우리 인류의 진화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이상희 교수는 자신의 저서 [인류의 진화]에서 아르디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하빌리스, 호모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리고 현생 인류로 주요 계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과정이 단순히 진화의 나무가 자라나 줄기와 가지로 나누어지기보다는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고 다시 갈라지는 복잡한 강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구의 모든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현생인류 기원의 가장 최근 설명은 지금으로부터 18만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기원했으며 이후 4~6만년 전 사이에 아프리카 집단의 일부가 유라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아프리카 기원설(Out of Africa)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처음 아프리카를 떠난 우리의 조상들은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삶의 영역을 넓혀갔으며,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살아왔다. 그런데 지난 수 백 년을 돌이켜 살펴보면 세계의 패권을 유럽인이 잡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아시아인이나 인류의 기원이라는 아프리카인, 또는 신대륙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원주민이 아니고 유럽인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인가? 같은 질문을 1972년 7월 열대의 섬 뉴기니의 정치가 알리가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에게 하였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쩌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총, 균, 쇠 내용 중 발췌).

이것은 세계의 여러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의 발달정도와 생활환경의 불균형에 대한 질문이었다. 어쩌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이 유럽인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을까?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자신의 저서 [총, 균, 쇠]에서 여기에 답하였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구대륙 사람들이 더 우수하고 신대륙 사람들은 열등해서가 아니고 단지 그 지정학적 위치와 주어진 환경이 그들을 가장 강하게 만들었다. 유라시아 대륙과 비교할 때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긴 모양으로 새로운 농사법을 개발하면 쉽게 같은 위도의 주변 지역으로 전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개발한 옥수수 농사법은 남북으로 긴 대륙의 형태로 인해 위도별로 기후가 달라 쉽게 북아메리카나 더 남쪽으로 전달할 수 없었다. 또한 작물화 할 수 있는 식물과 가축으로 길들일 수 있는 동물도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었고 유라시아에만 존재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Fertile Crescent)였다. 이렇게 얻어진 작물의 씨를 뿌리고 가축을 이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성이 증대되었다. 더 많은 식량이 생산되면서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한가지 예로, 유랑생활을 하는 수렵 채집인은 신생아가 성장해서 이동하는 부족을 따라 빠르게 걸을 수 있을 때 다음 아이를 가질 수 있었으므로 4년 정도의 터울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농경생활을 하는 정착민은 약 2년이면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정치가 시작되었으며 많은 사람 중에는 쇠를 이용하고 총을 만들어 낸 뛰어난 발명가들이 나타났다.

또한 균이라는 강력한 무기마저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 가축을 사육하면서 동물의 질병에서 진화하여 생겨난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페스트, 홍역, 콜레라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희생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희생의 댓가로 이 무서운 질병에 대한 면역을 얻었다. 결국, 유럽인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총과, 각종 치명적인 질병균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신세계 원주민들은 스페인 군인과 같은 정복자들의 총갈보다 그들에게서 전해진 세균으로 인해 더 많이 사망했다. 즉, 구대륙이 신대륙보다 더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닌 단지 주어진 환경 때문이었다.

리처드 도킨스 교수님의 [이기적 유전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총, 균, 쇠], 이상희 교수님의 [인류의 진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전과 인류의 진화 그리고 현대 문명의 형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진화유전학자인 저에게 이 세 권의 책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큼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처음 읽고 번역 문제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원서를 읽었습니다. 다행히 가장 최신판의 경우 번역이 자연스러운 편이어서 세 번 이상 반복해 읽으면서 각 장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문 내용만 700쪽에 이르는 [총, 균, 쇠]도 두 번을 정독하여 책의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는 개인적으로 작가의 억지스러운 주장(안드로메다의 비유와 밈(meme) 등)도 꽤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전과 진화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 좋은 책입니다. [총, 균, 쇠]는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다른 책들처럼 인류의 문명형성과 관련된 문화와 정치를 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의 [인류의 진화]는 현재의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호모(homo)라는 학명을 쓰는 인류의 진화과정을 잘 보여주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분야와 전공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교수님들께 하나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구취 관리법

COVID-19로 인하여 몇 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지내던 시절이 끝나고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점차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학생 및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흔히 입냄새라고 불리는 구취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현준 교수
치과대학 치의학과

구취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불쾌하다고 느끼는 호기가스를 일컫는 말로, 구취를 느끼는 주체가 자신만 느끼는 경우 자취증(주관적 구취)이라 하며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경우 타취증(객관적 구취)라고 합니다. 구강 또는 전신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취를 병적 구취라고 하며,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생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구취를 생리적 구취라고 합니다. 특히 생리적 구취는 기상 시 구취, 공복으로 인한 구취, 긴장 및 피로로 인한 구취가 있으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임신, 월경, 사춘기 및 갱년기에도 생리적 구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의 구취를 관리하는 방법에 알려드리겠습니다.

①적절한 수분 섭취

건조한 구강 내 환경은 구취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상태이며, 이를 조절해주므로써 구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기상 시, 긴장 및 피로로 인한 경우에도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어 구취를 발생시킵니다.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적절한 수분 섭취이며, 이는 많은 양의 수분을 한번에 섭취하기보다는 적은 양의 수분을 수시로 섭취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②부드럽게 혀 닦기

설태를 적절하게 제거함으로써 구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칫솔을 이용하여 칫솔질이 끝난 후 혀를 닦지만, 이는 혀의 상처를 낼 수 있어서 적절한 도구가 아닙니다. 혀를 닦는 적절한 방법은 칫솔이 아닌 혀세정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칫솔질이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닌 칫솔질 전에 부드럽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설태의 침착이 많이 있는 혀 후방 1/3부위를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데, 보통 해당 부분을 닦을 때 구역감이 생길 수 있어 닦을 때 호흡을 잠깐 참고서 부드럽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③잘못된 구강청결제 사용 중지

구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구강청결제를 많이 사용하며, 구강청결제의 향으로 인하여 구취가 감소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가면효과(마스킹효과)이며, 오히려 구강청결제의 일부 성분으로 인하여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어 구취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 상태에 따른 적절한 구강청결제를 처방·추천받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④주기적인 스케일링과 정기 구강검진

병적 구취의 대부분은 구강 내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그 중 치주질환은 구취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치주질환 중 치은염은 스케일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치주염의 경우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하여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질환은 구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개인 수준에서 구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이러한 방법에도 여전히 구취가 심하다고 생각된다면 가까운 치과를 내원하여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구취를 치료하여야 합니다.



신임 및 퇴임교원

교수회에서는 신임교원에게는 축전과 선물, 퇴임교원에게는 꽃다발과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퇴직자

김현수 (문과대학 사학과)
 이무상 (법과대학 법학과)
 정준현 (법과대학 법학과)
 유봉호 (공과대학)
 강호중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정재철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고상숙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강현석 (외국어대학 영어과)
 마상영 (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학부)
 박창수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최용 (과학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안상미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신득용 (의과대학 의예과)
 김동희 (의과대학 의학과)
 김재일 (의과대학 의학과)
 신동훈 (치과대학 치의학과)

2024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이현주 (문과대학 사학과)
 허윤정 (의과대학 의학과)
 장진혁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정호석 (의과대학 의학과)
 최준용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최미수 (의과대학 의학과)
 한혜주 (경영경제대학 글로벌경영학과)
 지성인 (치과대학 치의학과)
 엄원식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강대영 (치과대학 치의학과)
 김하연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이미성 (SW융합대학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서지원 (SW융합대학 사이버보안학과)
 이건석 (대학원 인공지능융합학과)

정겨울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김진환 (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학부)
 최영봉 (과학기술대학)
 강신우 (과학기술대학 화학과)
 서한길 (과학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신정아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김동준 (의과대학 의예과)
 송자영 (의과대학 의예과)
 정영학 (의과대학 의학과)
 이상민 (의과대학 의학과)
 서정욱 (의과대학 의학과)

상조활동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경조사에 화환, 축의금,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고

| | |
|---------------------------|---------------------|
| 이길호 교수 (의과대학) 빙부상 | 이일석 교수 (외국어대학) 빙모상 |
| 최 용 교수 (과학기술대학) 모친상 | 민준원 교수 (의과대학) 부친상 |
| 김요환 교수 (경영경제대학) 모친상 | 강윤단 교수 (의과대학) 시부상 |
| 강정원 교수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부친상 | 장혜자 교수 (과학기술대학) 모친상 |
| 심상길 교수 (과학기술대학) 모친상 | 송동수 교수 (법과대학) 빙모상 |
| 김윤태 교수 (문화예술대학원) 빙부상 | 이동민 교수 (사회과학대학) 빙부상 |
| 김민선 교수 (공공·보건과학대학) 시모상 | 박원복 교수 (외국어대학) 부친상 |
| 김지원 교수 (문화예술대학원) 부친상 | 김현수 교수 (문과대학) 모친상 |
| 조재형 교수 (과학기술대학) 빙모상 | 김용민 교수 (과학기술대학) 모친상 |
| 김중완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부친상 | 지영구 교수 (의과대학) 모친상 |
| 이석준 교수 (스포츠과학대학원) 부친상 | 송귀영 교수 (외국어대학) 모친상 |
| 김한철 교수 (외국어대학) 부친상 | 서문석 교수 (경영경제대학) 모친상 |
| 김흥자 교수 (의과대학) 모친상 | 백광현 교수 (공과대학) 모친상 |
| 김병남 교수 (공과대학) 본인상 | 황청수 교수 (과학기술대학) 모친상 |
| 황철호 교수 (생명공학대학) 빙모상 | 박경신 교수 (SW융합대학) 시부상 |

교수회 임원 및 운영 위원

교수회 임원

| | | | | |
|-------|----------------------|-----------|-----------------------------|-------------|
| 회장 |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김정윤 | ☎ 천안 3423 | ✉ jeongyunkim@dankook.ac.kr | 자연과학2관 809 |
| 부회장 | 법과대학 법학과 박영준 | ☎ 죽전 1569 | ✉ yjpark@dankook.ac.kr | 법학관 538 |
| | 음악·예술대학 미술학부 정치영 | ☎ 천안 3721 | ✉ casskiss@dankook.ac.kr | 예술관 112 |
| 사무국장 |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김현범 | ☎ 천안 3653 | ✉ hbkim@dankook.ac.kr | 생명자원과학관 404 |
| 지회 |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임은주 | ☎ 죽전 3217 | ✉ elim@dankook.ac.kr | ICT관 124 |
| 사무국장 | 간호대학 간호학과 임유미 | ☎ 천안 3882 | ✉ ymim@dankook.ac.kr | 실험연구동 205 |
| 감사 | 자유교육대학 임수경 | ☎ 죽전 3775 | ✉ totorolsk@dankook.ac.kr | 상경관 618 |
| |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오세행 | ☎ 천안 1257 | ✉ seheangoh@dankook.ac.kr | 약학관 311 |
| 여교협회장 | 공공·보건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지숙 | ☎ 천안 3242 | ✉ jeesook@dankook.ac.kr | 사회과학관 323 |

교수회 운영위원

죽전캠퍼스 운영위원 (24명)

| | |
|-----------------|--|
| 문과대학 | 국어국문학과 권진옥 영미인문학과 위혜경 |
| 법과대학 | 법학과 박영준 법학과 정해상 |
| 사회과학대학 | 도시부동산학부 박승훈 커뮤니케이션학부 전중우 |
| 경영경제대학 | 무역학과 이지수 경영학부 문보영 경영학부 이기광 경영학부 전정호 |
| 공과대학 | 전자전기공학부 장우영 건축학부 이경구 건축학부 홍경구 |
| SW융합대학 | 소프트웨어학과 이상범 컴퓨터공학과 박경신 |
| 사범대학 | 과학교육과 임은주 체육교육과 최형준 |
| 음악·예술대학 | 도예과 김병율 음악학부 김난희 음악학부 이수진 |
| 자유교양대학 | 유혜원 |
| 일반/특수/전문 대학원 | 특수교육대학원 정연수 교육학과 박명선 행정법무대학원 이환수 |

천안캠퍼스 운영위원 (24명)

| | |
|-----------|----------------------------------|
| 외국어대학 | 아시아중등학부 류병재 아시아중등학부 송상현 |
| 과학기술대학 | 수학과 심상길 물리학과 경지수 식품공학과 이형재 |
| 생명공학대학 | 생명자원학부 김현범 환경원예조경학부 채원병 |
| 예술대학 | 미술학부 정치영 문예창작과 김태수 |
| 스포츠과학대학 | 스포츠경영학과 이병관 |
| 의과대학 | 의예과 김학림 의학과 민준원 의학과 조경진 |
| 공공·보건과학대학 | 치위생학과 이상임 심리치료학과 김민선 |
| 간호대학 | 간호학과 임유미 |
| 치과대학 | 치의예과 이성훈 치의학과 송영균 치의학과 한미란 |
| 약학대학 | 약학과 강명주 |
| 자유교양대학 | 장유정 차민영 |
| 대학원 | 정책경영대학원 고경호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양희석 |

교수회 사무국 연락처



죽전 캠퍼스 교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 031-8005-2894 김문주 조교
천안 캠퍼스 교수회 사무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119 인문과학관 244호 ☎ 041-550-1553 이소현 조교
이메일 : prof@dankook.ac.kr 웹사이트: <https://cms.dankook.ac.kr/web/professor>

편지집합기 및 기고 방법 안내



이지수 교수
경영경제대학 무역학과

새 봄, 배움과 성장에 대한 기대 속에서 <교수회 브리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교수회 브리프> 제18권 2호에는 구강건강관리부터 CES 참관기, AI, 인류문명의 진화까지 소소한 일상에 유용한 팁부터 거대 담론까지 정말 다양한 글들이 실렸습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원고를 주신 교수님들과 도와주신 교수회 운영위원 교수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18권 3호 부터는 앞, 뒷면 표지를 위한 캠퍼스 사진도 모집합니다. 캠퍼스의 순간,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분들께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교수회 브리프>는 다양한 교수님들의 소식과 사연, 사진을 기다립니다.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와 순간이 있다면 교수회 사무국 이메일(prof@dankook.ac.kr)로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투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수회 브리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교수회 슬로건 '섬김, 소통, 참여'를 손 형태로 상징화함. 교수회브리프 18권 2호 발행일 2024년 2월 29일
발행인-김정윤, 인쇄-김현범, 편집-이지수, 제호·로고 디자인-정훈동, 행정-김문주·이소현 조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인문과학관 244호 Tel 041-550-1553.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천안캠퍼스 울곡기념도서관 앞 벚꽃길

